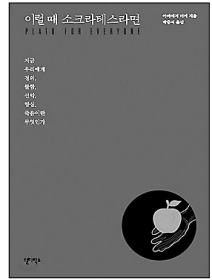


# 철학은 아름다운 삶 위해 큰 역할

## 이럴때 소크라테스라면

아비에서 터져 지음 | 박종서 옮김  
원더박스 펌 | 1만 8천원



“이 책에 한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건 바로 불의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의로부터 고통받는 편이 더 낫다는 사실을 일부 독자들에게 확신시키는 효과였으면 하는 것이 저자인 나의 바람이다.”

### 선택의 순간순간, 우리는 철학자

우리는 “점심엔 무얼 먹을까?” 같은 평범한 일상의 문제에서도 고심하곤 한다. 다양한 선택지를 두루 비교하며 무엇이 ‘나’에게 더 이익인지를 따져 보는 건 기본이고, 가끔은 무엇이 더 ‘옳은지’를 두고 고심도 한다. 밥 한 공기 줄줄이 따라 나오는 다양한 생각거리들, 예를 들면 육식이나 채식이나, 로컬 푸드나 아니냐, 많이 먹을 것이냐 적게 먹을 것이냐 등을 붙잡고 있노라면 밥 생각이 달아날 정도이다.

인생에는 밥만큼, 혹은 밥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할 것이며, 무슨 직업을 선택하고, 누구에게 투표를 할지 등등, 이 모든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려 들면, 생각할 시간만 해도 부족하다. 그렇다고, 인생을 만들어 갈 중요한 결정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수도 없는 노릇. 그러나 인간은 강요됐든 아니든 “타고난 철학자”일 수밖에.

“너 자신을 알라”, “악법도 법이다”라는 발언으로 유명한 철학자가 있다. 2500년 전에 살다 간 소크라테스이다. 2014년을 사는 현대인에게 고조할아버지 정도의 느

낌으로 다가오는 소크라테스. 그는 교과서 에나 등장하며, 공부거리나 늘려 주는 박제된 철학자일 뿐일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문화, 역사, 예술, 종교에 관해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우리에게 그의 말들이 현실감 있게 다가올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이웃에 살아 우리의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떨까? 요새 쓰는 말로, 우와 고민하는 이슈에 대해 소크라테스와 토론할 수 있다면, 철학 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만 같다.

### 플라톤 대화편은 우리 삶과 어떻게 만나는가

이 책의 저자 아비에서 터져는, 플라톤 대화편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다섯 작품 <크리톤> <메논> <에우티프론> <변론> <파이돈> 등이 우리 시대와 호흡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이 책에서 선보였다.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소크라테스와 상대방이 나누는 대화를 단편 소설 형식으로 써내려간 이 책에서, 저자는 플라톤 대화편의 내용 전개를 고집스럽게 따라가며 플라톤 철학의 맥락을 놓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라 말하며 독배를 마시는 장면을, 법치의 상대적 이점을 거론하며 징벌 영장에 응하는 청년의 모습으로 그려내거나, 아테네 법정에서의 변론 장면을, 세속적 성공을 위한 교육을 하라는 학교 당국의 요구에 맞서 철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며 기꺼이 파면당하는 교육자의 모습으로 재현하거나, 소크라테스의 죽음 장면을, 소신을 위해 안락사를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는 철학자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등 현대의 딜레마 상황을 글감으로 삼음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이 플라톤의 사상을 우리들 삶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철학 하는 삶의 불편함, 혹은 행복에 대해 이 책은 플라톤 대화편으로 들어가는 입

문서로도 훌륭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철학적 생활 안내서’로도 손색없다. 플라톤이 철학의 중요한 목표로 삼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기예’로서의 철학이다. 이는 철학이 삶을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는 데 기여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철학을 함으로써 우리는 정의나 선함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그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그런 가치를 따르는 삶, 소신을 떨고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 수시로 슬픈 혹은 비굴한 타협을 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사이 스스로 점점 타락하고 있다는 자괴감 속에서 몸부림치든지, 아니면 괴로움을

### 소크라테스와 대화 소설로 정리

### “불의 저지르기 보다 불의로 고통받자”

### 가치있는 삶의 참된 정의 설명

소크라테스가 돌아왔다  
소크라테스만큼이나 정의의 목을 매는 저자의(저자에게는 비밀 정보원 노릇을 하면 자리를 보전해 주겠다는 대학 당국의 유혹 대신 해고를 선택한 전력이 있음) 손을 거쳐, 잔소리꾼 소크라테스가 25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 시대에 돌아왔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소크라테스, 그와 상대방이 벌이는 대화를 따라 가다 보면, 수시로 그의 논지에 속수무책으로 말려든다. 하지만 행간을 따라 가는 사이, 자기의 삶을 대하는 그의 진지한 태도와, 논증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그의 생각법이 우리 자신에게 스며든다면, 이만큼 행복한 독서 경험도 드물 것이다.

책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따르는 정의를 논리 정연하게 입증한 후, 거리낌 없이 전정터로 향하고 일자리를 거부하고 죽음을 맞는다. 그런데 그는 입술을 꼭 깨물거나 주먹을 불끈 쥐는 대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듯 미소를 짓는다. 황당함보다는 부러움을 불러일으키는 이 괴짜 철학자의 행동 앞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인지를 곰씹어 본다.

### 소크라테스가 증명 못한 한 가지

“이것 보게, 심스.” 소크라테스는 다소 야만처럼 말하더군요. “내가 자네에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걸 전혀 증명하지는

못한다고 말아야.”

안락사를 선택하고 죽음을 맞기 직전의 마지막 대화에서, 소크라테스는 죽음 이후 영혼의 삶에 대해 말한다. 신체와 분리된 영혼이 어디로 가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어떻게 순수한 관념(idea)들을 만나서 참된 지식을 얻는지, 어떻게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는지 등등에 관한 ‘신화’를 들려준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납득할 수 없는 두 친구 겸 제자가 거듭 질문을 던지고, 소크라테스는 결국 자신이 제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며, 어쩌면 심지어 추측도 못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신화적인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시종 철저한 논증으로 일관하던 그도, 진리를 확인하고픈 희망과 죽음을 통해 영혼이 순수해질 수 있다는 믿음만은 버리기 싫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추측도 못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철학 하는 삶에는 이성 못지않게 희망, 감정, 의지 역시 중요함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 소크라테스가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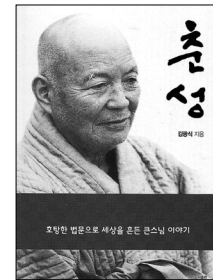
소크라테스만큼이나 정의의 목을 매는 저자의(저자에게는 비밀 정보원 노릇을 하면 자리를 보전해 주겠다는 대학 당국의 유혹 대신 해고를 선택한 전력이 있음) 손을 거쳐, 잔소리꾼 소크라테스가 25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 시대에 돌아왔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소크라테스, 그와 상대방이 벌이는 대화를 따라 가다 보면, 수시로 그의 논지에 속수무책으로 말려든다. 하지만 행간을 따라 가는 사이, 자기의 삶을 대하는 그의 진지한 태도와, 논증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그의 생각법이 우리 자신에게 스며든다면, 이만큼 행복한 독서 경험도 드물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춘성 스님 생애 새롭게 재구성

### 춘성

김광식 지음 | 도서출판 종도 지음 | 1만8천원



만해 스님의 제자이며 무애도인으로 알려진 춘성 스님의 이야기를 다룬 책 <춘성>이 수정본으로 재출간됐다. 2009년 처음 출간된 이 책에 당시

에 불교계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사정상 출판사가 문을 닫으며, 세인의 관심에서 사라져가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저자 김광식 교수가 책의 내용을 수정 보완해 이번엔 새롭게 선보였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은 2009년 초간본의 내용을 수정하고 인터뷰 및 일화를 추가한 것으로 대중들이 읽기 편하도록 편집했다”며 “춘성이라는 거울을 통해 이 땅에서 다양한 춘성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재출간 배경을 밝혔다.

## 불교에서 ‘茶’는 수행의 한 방편

### 한국의 차그림

오병훈 지음 | 차의 세계 펌 | 2만 5천원



다. 특히 한반도에 차가 유입된 경로를 보면 불교와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삼국시대에 구법승들이 수당을 찾아가 그 곳 수행자들이 차 마시는 것을 보고 귀국할 때 그 다법을 갖고 이 땅에 돌아왔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림이 당에서 차씨를 갖고 들어와 지리산 기슭에 심은 것도 어쩌면 수행자로서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한국의 차문화는 선차에서 그 맥을 찾을 수 있다. 불교에서는 차를 수행의 한가지로 보고 다반사니 깎다거, 다선일미, 선다일여 등 같은 법어를 만들어냈다.

이 책은 차의 역사는 물론 그림속에 등장하는 위인들의 사상세계와 문화적 민속학적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냈다. 차는 단순한 기호음료가 아니다. 차 속에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깃들여 있고 선비정신이 스며있다. 차 잔을 앞에 놓고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예를 배우고 전통 가치관을 몸으로 익힌다. 차 꽃은 아래를 향해 핀다. 그래서 차나무는 자신을 낮추고 남

저자가 이 책에서 기술한 춘성 스님은 이렇다. 춘성 스님은 승려로, 수행자로, 망월사 주지로 근대 및 현대불교의 격망을 헤치고 묵묵히 걸어간 자유인이었다고 회고한다.

또한 만해 스님의 제자로 3.1운동 불교 대표인 백용성 스님과 함께 화엄사상을 웅변적으로 전한 화엄법사로, 수덕사 선승인 만공 회상사 지독히 참선 수행한 간화선 수행자였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춘성 스님은 도봉산 망월사서 수좌들을 매섭게 지도한 선지식으로 서울 시내 저작거리서 부처님 말씀을 원색언어로 전하기도 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는 춘성 스님이 활동하던 때도 그랬고, 그가 떠난 이후에도 결코 춘성 스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 아니 그를 부를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제 우리는 춘성을 다시 찾아내고 다시 만나야 된다. 왜냐하면 춘성의 고민, 고투, 정신 등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을 높이는 경양지덕을 품고 있다. 옛 선지식들이 차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전통적으로 차그림에는 동자가 차를 달이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상산사호도에서는 동자가 차를 달이고 죽림철현도에서도 차를 끓인다. 사찰의 산신각이나 독성각에 모신 그림에서도 차 달이는 동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역사 속 주인공들 중에서도 다인들은 많다. 조선시대에는 김시습, 김홍도와 후기에는 동다송을 지은 초의 선사, 추사, 다산, 이상정 등이 바로 그들이다.

### 차관련 조선시대 그림 71점 제시

### 차 역사와 문화 자세히 소개

이 책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고려시대 회화에 나오는 음다 풍속과 조선시대 명화에 나타난 차자리를 한데 묶었다. 그림을 통해 차와 불교문화 나아가 동양사상이라는 큰 대해를 독자들에게 안내한다. 한마디로 이 책은 역사속 등장인물과 차를 접목해 그 사상세계를 펼쳐보이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책에서는 정선, 강세황, 김홍도, 신윤복, 장승업 등 조선의 대표적 화가들이 작품 71점을 제시하고 작품 해설과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차와의 관계까지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저자는 “차그림이야말로 우리 차의 진정한 정보를 담은 당시의 생생한 기록이며 왜색다도에서 벗어나 가장 한국적인 다법을 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 전 세계 수행자들은 무엇을 먹으며 수행할까?

### 공양간 노란문이 열리면

함영 지음 | 참글세상 펌 | 1만 5천원



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 일어난, 반강제적이고 수동적이며 마치 오래전에 짜인 일정을

움켜 겨자 먹기로 따르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여행은 대체로 우울하고 쓸쓸했다. 그러나 여행길에서 돌아올 즈음, 나는 내가 어찌서 그런 내키지 않는 여행을 혼자 떠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해 이해하게 됐다.

여행에서 무엇을 얻었다든지 혹은 버리겠다든지 하는 생각이나 바람 없이 떠날 막연한 여행이었지만, 여행은 번번이 그래야만했던 필연적 이유를 알게 했다. 굳이 그 이유 중 한 가지를 밝히려면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살면서 한번쯤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할 때, 그 사람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지만 어떤 인연법으로 인해 한번쯤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어렵듯이

이해하게 됐다고 한다.

저자의 정체성이 일명 밥 작가에서 때론 여행 작가로 불릴 때도 있지만 여행은 때론 힘든 숙제와 같았다. 하지만 거침없이 써 내려가는 문장과 시원스런 표현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의심스럽다. 몇 번을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만 떠날 수 있는, 막막하고도 두려운 길. 더구나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으로의 여행은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당시 내게는 이왕이면 더욱 낯설고 더욱 물 설은 곳이 필요했던 것 같다. 여행의 이유는 때론 비슷했다. 여행 외에는 마땅히 다른 살만한 길이 떠오르지 않았다. 언제나 낯설 투성이인 삶속에서 손발이 썩

공 묶여 움푹푹하게 할 수 없는 증음과 같은 상태에 놓일 때가 있었다. 살아가는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사람과 세상에 대해 깊은 절망을 느낄 때, 내 문제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혹은 내 자신을 더는 위로하고 사랑할 자신이 없을 때라고 한다.

일본, 미얀마, 다람살라를 혼자 여행하면서 많은 인연을 만나 삶의 활력소를 찾아간다.

인생은 긴 여행이다. 그러나 빈손으로 떠나 한움큼 움켜 쥐듯하지만 어느새 세월은 가벼워진다. 여행 또한 마찬가지로 떠날 때는 마냥 즐겁지만 돌아올 때는 아쉬움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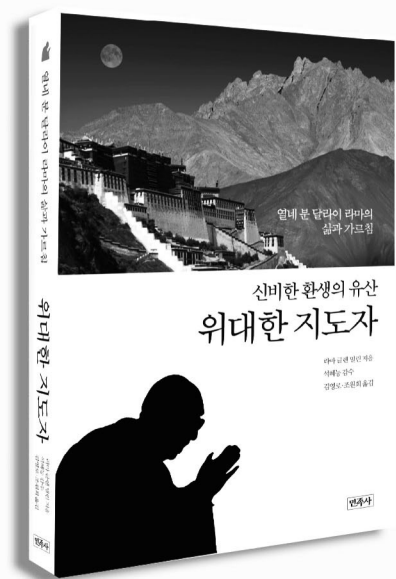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 환생 제도로 이어지는 달라이 라마, 그 신비 속에서의 삶과 고뇌를 들여다 본다

최초로 1대 달라이 라마로부터 현 14대 달라이 라마까지  
역대 달라이 라마들의 삶과 가르침, 고뇌를 담은 책!!!

## 신비한 환생의 유산 위대한 지도자

- 1대 달라이 라마 -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 2대 달라이 라마 - 두 가지 중요한 예언의 실현
- 3대 달라이 라마 - 파드마 썸바와의 예언
- 4대 달라이 라마 - 칭기즈칸의 후예
- 5대 달라이 라마 - 티베트의 정신적 · 세속적 지도자
- 6대 달라이 라마 - 자유로운 생활과 사랑의 노래
- 7대 달라이 라마 - 하상 칸의 박해를 피해서
- 8대 달라이 라마 - 불안한 시대
- 9대로부터 12대까지 - 달라이 라마들의 요절
- 13대 달라이 라마 - 가장 도전적인 삶
- 14대 달라이 라마 - 인도로의 탈출



리아 글렌 말린 지음  
석혜는 김수  
김영로 · 조원희 옮김  
신국문 | 452쪽 | 값 23,500원



일진 스님 지음 | 신국문 발행 | 312쪽 | 값 15,000원

##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승만경』은 여래가 될 수 있는 경전, 부처가 될 수 있는 경전이다. 40여 년을 경전 연구와 탁월한 법제(法製)로 전법 활동을 해온 경험으로 저술된 일진 스님의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많은 이들이 읽고 부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기를 고대한다.

-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의 추천사 중에서

